

지역 소식통

부안군, 변산비치파티 비치댄스 경연대회 개최

부안군은 한 달동안 열리는 '2024 변산비치파티'의 시작인 비치댄스 경연대회를 오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

3일간 비치댄스는 '춤추는 변산, 눈부신 해변'을 주제로 청소년부, 외국인부, 일반부의 댄스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총상금은 2,200만원으로 참가자들에게 춤을 향한 열정으로 꿈을 이루는 무대를 선사하고 방문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신나는 음악과 춤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액티비티와 워터슬라이드, 풀장, 부부 서비스별과 함께 모래찜질, 물풍선 던지기, 모래놀이 등 다양하고 특별한 체험이 준비 되어있으며 여러 가지 먹거리와 포토존에서는 가족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한편, 8월 2일 개장식에는 나훈자님과 초창기 멤버로 주역을 맡았던 육종완 밴드, 8월 3일에는 스트리트 댄스 파이터에서 인기를 끈 아이키(혹/HOOK)와 진조크루, 8월 4일에는 소울밴드와 포커스의 댄스 퍼포먼스로 축제 분위기를 날마다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안전망 홍보 강화

정읍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다.

이 보험은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교통사고 및 일반상해 치료비 제외), 대중교통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4개 항목을 포함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국내 최대 생태환경도시 만든다

고창군, 슬래 생태축 복원사업 완공 · 제10회 그린시티 우수 지자체 선정 등 계기

고창군이 방장산·문수산의 산림과 인접강 등 하천 고창갯벌 연안의 생태축 연결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생태환경도시로 우뚝서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과 전남 장성을 잇는 도로가 나 끊어진 영산기맥 생태축을 복원했다. 영산기맥은 호남정맥(내장산~백암산)에서 갈라져 나와 고창 양 고살재·슬래를 지나 영광 목포 유달산에 이르는 총길이 160km의 전북 유일한 기맥이다.

이곳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동공간이 분리된 생태통로를 만들었다. 또 전량데크도 설치해 고창읍의 멋진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고창군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제10회 그린시티'에서 전국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 '그린시티'는 환경부가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시행중인 사업이다. 특히 도시환경·자연환경·기후변화 대응·리더십·주민참여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군 이행평가 결과' 2023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

환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 장치 부착사업, 엔진교체 사업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LPG 통학차량으로 전환시 당당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밖에 고창군이 관내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등 28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6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 운영했다. 지난해 4월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지질명소, 지질·문화 교육 현장체험학습 각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부안군은 고창군과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우수한 지질·지형지원을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우리나라 다섯 번째이며 해안형 지질공원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았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 부안의 지질명소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질교육의 현장으로도 잘 알려진 채석강과 적벽강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보고 학습할 수 있는 해안 노두가 잘 발달되어 지질 동이리, 지질탐방체험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경북도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 100명의 학생들이 부안을 방문하였다. 2차 3일 동안 부안을 탐방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방문하였다.

초등부팀과 중등부팀으로 나뉘어 연령에 맞는 지질공원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질명소 적벽강에서는 중등부팀을 위해 심도 있는 지질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곳에서는 격포 분지의 끝인 적벽강의 중생대 백악기 동안 벌어진 화산-퇴적 활동의 부안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질명소 채석강에서는 쉽게 지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채로운 지질구조 관찰을 위해 초등부팀이 참여했다. 채석강 퇴적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퇴적층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지질구

조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백악기 부안의 퇴적환경을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지질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지질과 문화 생태가 공존해 가는 복합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질공원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부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야기로 지질공원해설사와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했다.

학생들은 들쭉날쭉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채석강 해식절벽에 나타나는 퇴적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퇴적환경 및 형성과정에 대한 심화토론을 이어갔다.

부안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으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군민·전문가 등과 '구도심살리기' 정책디자인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군민·전문가 등과 함께 구도심 살리기 정책디자인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2024년 고창군 공공서비스디자인단 발대식을 열었다. 정책디자인단은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최초는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고창 금토(金土)끼 야(夜)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를 주제로 군민과 정책디자이너, 공무원의 상호성 있는 정책



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구도심 야시장 현장 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등 활동을 통해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발대식 전에는 조영수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정책디자인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공기관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을 뜻한다.

고창군은 이번 구도심 살리기를 시작으로, 군민·전문가 참여 프로젝트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자녀 혜택 2자녀로 확대

정읍시, 관련 조례 일괄개정... 지원대상 범위 확대

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최근 혼인한 부부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가 첫째는 증가한 반면, 둘째아부터는 지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정책 대상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 양육·보육·교육·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9일에는 제29회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제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급

수 조례 등 총 6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시민들의 체감이 큰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제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발굴에도 힘을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지원책 외에도 생활 밀착형 혜택·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점진적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등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다자녀정책의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역 관광지 방문 '윈더풀'

고창군 농촌에 없어서 안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근 휴일을 맞아 지역 관광지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캄보디아 공공형계절근로자 30명이 고창읍성, 상하농원, 구시포 해수욕장 등 관광胜소를 방문했다. 고창읍성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관소리와 농악체험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앞서 올 상반기 선운산농협은 캄보디아 공공형계절근로자 3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왔다.

대규모 고용이 부담스러웠던 영세농가에 큰 힘이 되면서 농가 호응이 컸다.

농가유망에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농가 주거 방식과 비교해 무더야털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형계절근로자들 역시 최신식 기숙사에서 머물며 통역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창군은 하반기에 캄보디아 공공형계절근로자 10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복지·혜택을 구상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